

교육

진학·진로 교사들과 함께하는 2013 대입 스테디

① 입시 체크 포인트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형요건의 변화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유독 많다. 정확한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광주·전남 지역 예비 수험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광주지역 고교 진로·진학교사들로 구성된 '나눔 입시컨설팅 연구회'(회장 한철만·송덕고)의 입시분석을 연재한다.

'수시 6회 제한' 전략적 접근 필요

수시전형 추가 합격자도 정시 지원 전면금지 정시모집, 상·중위권 대학 경쟁률 상승 예상

2013학년도 대학입시는 작년과 비교해 많은 변화들이 있다. 수시 원서 접수기간의 변화, 수시 원서 접수 6회 제한·총원자(추가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수시 모집 비중 확대, 수능 시험 영향력 증대 등이다. <수시 원서 접수기간의 변화>올해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수능 이전(1차 8월 16일~9월 11일)과 수능 이후(2차 11월 12일~16일)로 나눠 원서를 접수한다. 각 대학은 정해진 1, 2차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접수 기간을 둘 수 있고, 원서 접수 이후의 면접이나 논술전형 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지원을 희망하는 각 대학의 최종모집요건을 통해서 원서접수 기간과 대학별 고사일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목 신중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수시 모집 확대>올해 수시 모집은 2012학년도에 62.1%보다 0.8% 증가한 62.9%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대 80%,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상원대, 중앙대 등은 70%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등록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올해는 수시 지원 횟수 제한과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로 인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및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실질적인 수시모집 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

<수능 비중 확대>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전략적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일지라도 최저학력기준 통과와 혹은 정시 대비를 위하여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시에서도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과 정원의 30~7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전형 등 수능 시험의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수능이 작년과 같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동점자

2013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7월 2(일) 시행 세부계획 공고(중앙 일간지)
8월 22(수)~9월 6(목) 원서 교부 및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9월 4(화)~6(목) 원서내용 변경 (취소)신청
11월 8(목) 시험일
11월 8(목)~12(월)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5일간)
11월 19(일) 정답 확정
11월 9(금)~27(화) 채점 (19일간)
11월 28(수) 성적통지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명뉴스

가 다수 발생, 정시에 확신이 없는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 필수적으로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시 지원 횟수 제한에 따라 모든 수시 전형에서는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정시모집에서는 정시 모집인원 및 수시 이월 인원 감소로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중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는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수능 준비, 실력 분석을 통한 자신의 강점이 있는 전형 유형에 집중하는 지원 전략 수립,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나눔 입시컨설팅 연구회>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유학·학생비자 세미나'

주한미국대사관은 2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미국 유학·학생비자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비자 설명회와 유학 생활정보, 아이비리그 대학 소개 및 지원 팁 등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긴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윤경철교수 '서봉의학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가 제10회 서봉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봉의학상은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무하고 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 2002년 12월 국영중 전남대 명예교수의 후원으로 제정됐으며,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선정해 시상한다. 윤경철 교수는 최근 5년간 SCI 등 국제 학술지에 40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21일 전남대 대학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실용적 건성안 모형을 이용한 안구염증의 치료 연구'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부상으로 연구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윤 교수는 각각 및 눈물질환, 백내장 및 라식 수술, 안성형 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백내장 굴절수술학회, 한국외안부학회,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한국안감학회 등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2006년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2008년 의학신문사 주최 제16회 톨론학술상을 수상받은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언어교육원 동남아 다양한 언어 보급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안경환)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부상하는 광주시의 발전상에 맞춰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언어를 보급하기 위해 몽골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강좌를 새로 개설한다. 언어교육원은 현재 영어·일본어·중국어 비롯해 제2외국어 강좌로 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베트남어·러시아어 강좌 등 총 9개 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2일 개강하는 여름학기 강좌에 지원 강구인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충절을 사전 예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은 영어, 일어, 중국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언어를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에 앞장서는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안경환 언어교육원장(외국어대학 영어과)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세계 인구의 1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남아 민중화의 상징이 된 미얀마와 협력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시대적 사명이며 자원부족인 인도네시아, 몽골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24~25일 '지역대학연합 총회'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주관하는 한국지역대학연합 제37차 총회가 24일 오후 2시 광주 라마다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관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8개 지역 회원대학 총장과 대학원장, 학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정관수 사립

대학제외과정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8개 대학 발표자들이 지정주제와 특별주제에 대해 발표를 한다. 지정대학 주제발표에는 계명대 남재열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 소개', 울산대 조지은 산학협력부단장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남대 김종은 창업지원단장이 '한남드림밸리 구축전략', 호남대 윤인도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발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8일)을 앞두고 오는 6월 수능 1차 모의평가가 실시되는 등 입시일정이 본격 진행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에셋코리아)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company details.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가은 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and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